

익산형 출산·돌봄서비스 전국 '최고'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 첫 확대 임신·출산 연계 지원 시민 호응

익산시가 도입한 임신에서 출산, 돌봄까지 이어지는 전국 최초의 맞춤형 지원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야간·휴일 돌봄서비스와 남성 난임치료 사업 등은 선도 사례로 주목받으며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한다.

먼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북지역 최초로 익산형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을 남성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30명을 지원했지만 남성 30명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임산부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 1회당 건강관리비를 당초 26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지역의 모든 출산가정에 최대 15일까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도 전액 지원된다.

이로 인해 산모 1200여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야간시간제 보육 서비스와 휴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야간·휴일 돌봄서비스 사업이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센터는 맞벌이와 다자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간과 토요일을 포함해 공휴일까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한다.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령별 돌봄 시스템의 운영도 강화한다.

초등생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4호점까지 개설했으며, 내년까지 9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돌봄과 교과 학습지도, 독서와 미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사업'을 통한 12세 이하 자녀의 공동 육아를 통해 주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전문화된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임신에서 출산, 보육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아이 키우고 살기 좋은 익산시로 조성해 인구 문제 돌파구를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따뜻한 세상...온정 잇따라

우유 배달원이 군산시청에 '편지와 함께 35만원'

익명의 남성이 군산시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35만원을 놓고 가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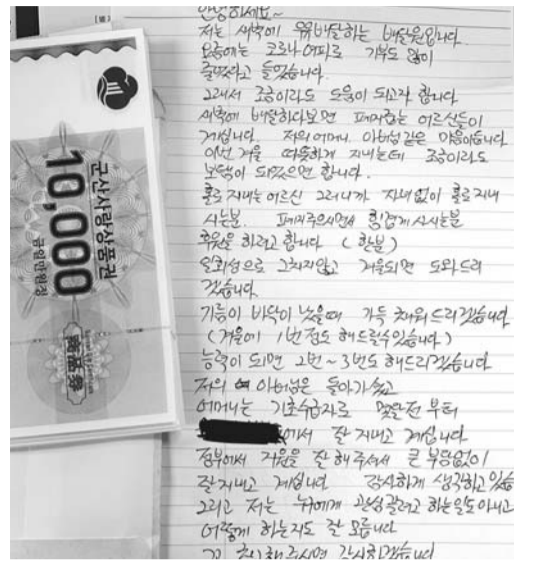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복지정책과를 찾아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쓴 봉투를 직원에게 건넨 뒤 사라졌다.

남성이 건넨 봉투 안에는 편지와 함께 군산사랑 상품권 30만원, 현금 5만원이 들어 있었다.

손편지를 통해 새벽에 우유배달을 하는 배달원이라고 밝힌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부금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벽에 우유배달을 하다 보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고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나 그분들이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작정 시청에 찾아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친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받고 있어 정부의 도움 덕분에 큰 부담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소액이지만 기부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마음 한편에 시원하고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성금은 읍·면·동 추천을 통해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노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고창 선운사 '3000배 성금' 난치병 어린이에 전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24교구 본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스님)가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모은 성금을 난치병 어린이의 치료비를 전달해 감동을 주고 있다. <사진>

12일 고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스님)에 따르면 복지관에서 난치병 환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2020년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전달식'을 했다.

후원금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불교계종사회복지재단과 고창선운사가 공동으로 난치병어린이를 위한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모금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고창교육지원청 위센터 추천을 통해 고창 관내에서 치료비와 수술비 지원이 필요한 A환아(뇌전증)를 선정해 350만원을 지원했다.

대원 스님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난치병



어린이가 3000배 철야정진 모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 성금이 환자의 빠른 쾌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00배 철야정진 의료비 지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0년 처음 시작돼 올해 20회째 이어오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로컬잡센터 '신맛나는 일자리 페스티벌'

식초·식품업체 13곳 참여 지역민 구인·구직 도와

고창군과 고창군로컬잡(JOB)센터는 지난 11일 고창읍 선운교육문화회관에서 '2020 고창군 신맛나는 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식초문화도시 고창군의 식초산업 현황과 기능성식초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식초·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홍보와 구인·구직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하농원, 참바다, 배상면주가 등 고창군 내 15개 기업을 비롯해 고창군보건소,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전북광역새로일하기센터,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 등 전북과 고창군 내 일자리·복지 지원기관 13곳이 참여했다.

구직자를 위한 퍼스널컬러 컨설팅, VR 면접, 이력서 사진촬영, 식초홍보관, '신맛을 맞춰라' 등 다양한 취업 상담·컨설팅과 식초 관련 이벤트 행사가 병행된다.

행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간대별로 30~50명 이내로 입장을 제한했다.



고창군과 고창군로컬잡(JOB)센터가 지난 11일 고창읍 선운교육문화회관에서 '2020 고창군 신맛나는 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고창군 제공>

또 읍·면별로 입장 가능 시간을 지정했다. 정길한 고창군 상생경제과장은 "지역내 식품가공 관련 업체들의 매출 신장으로 구인수요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단순한 취업박람회

가 아닌 뉴그린을 테마로 식초·식품산업과 기업을 군민들에게 알리며 일자리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 지역화폐 '다리로움' 인센티브 적용 골목상권 활성화

익산시가 지역화폐 '다리로움'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한다.

익산시는 다리로움의 개인인센티브 적용 구매 한도에서 구매(충전)시 10% 즉시 추가 적립, 사용액의 10%를 다음달 포인트로 돌려주는페이백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이용 확대 요청으로 시는 페이백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와 함께 체면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15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인종 이벤트도 벌이고 있다. 다리로움 회원 가입자수는 7만8455명, 발행액은 1490억원이다. 발행 규모는 당초 1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의령玉氏 대동보(족보) 발간 알림

◆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뒤흔세

코로나-19에도

뿌리 깊은 의령옥씨의

신축대동보(2021) 발간을

준비합니다.

◆ 이북에 고향을 둔 의령玉씨 종친들(학생공파, 학사공파, 평장사공파)께서는 보다 더 큰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간혹 호적상 본관이 거제, 밀양, 반성, 사천, 의성, 진주로 신고 된 옥씨의 원 뿌리도 당나라에서 고구려에 파견(635년)된 정관팔학사 의령玉氏의 시조 玉眞瑞옥진서임이 명확합니다.

※ 최근 본관이 진주로 등재된 玉氏가족이 의령玉氏족보를 근간으로 본관을 진주에서 의령으로 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의춘사 전경

◆ 시조 의춘군 옥 진서를 비롯한 상계선조14위를 모신 의령옥씨 사당
◆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 의령옥씨 상징탑

◆ 대전 효문화뿌리공원 내에 설치된 의령옥씨 상징탑
◆ 전국 222개 성씨 참여



◆ 의령옥씨 뿌리관련 간행물

◆ 갑자보(184년) ◆ 기묘보(1999년)
◆ 계해보(1863년) ◆ 학사공파(1935년)
◆ 정미보(1907년) ◆ 평장사공파(2012년)
◆ 갑오보(1954년) ◆ 의령옥씨 1500년사
◆ 병진보(1976년) ◆ 옥보고략 등

◆ 수단등록기간 : 2019년 12월 1일~ 2020년 11월 30일

◆ 연락처 : 051-504-8912 ◆ 팩스 : 051-504-8913

◆ 편찬위원장: 옥삼중, 옥형길 ◆ 사무총장 치원 010-6580-4493 ◆ 사무국장 종석 010-3855-8377

◆ 별시위공파: 대표 동환 010-2796-1775 ◆ 감사공파 : 대표 도민 010-2999-6886

◆ 교리공파 : 대표 영호 010-9581-0454 ◆ 평장사공파: 대표 평권 010-3797-6326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원남로15번길 7 오름빌딩 8층

◆ 홈페이지 : http://www.uroak.com 치운 010-9606-2589

◆ E-mail : orumeng1@naver.com

의령玉氏 대종회장[추진위원장] 옥치남 010-3550-8912